



두 종의 제5세대 상아질 접착제의 Technique Sensitivity

조 치 환*, 이 정 열, 신 상 완 | 고려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/ 중앙치과의원

레진 수복에 있어서 치아와 수복물간의 안정적이고 강한 결합은 치료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. 상아질 접착 시 상아질은 법랑질에 비해 기질이 복잡하여 접착과정이 복잡하고 접착시 많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에나멜접착만큼 일정한 결합력을 나타내기 어렵다.

상아질 접착시 술자의 technique이 접착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, 시스템에 따라 이러한 technique sensitivity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이 연구의 목적은 보다 일정한 상아질 접착을 위해 술자의 technique에 관계없이 일정한 접착력을 나타내는 접착시스템을 선택하고 앞으로의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. 이 연구에서는 5세대 상아질 접착제 중 acid-etching type(ONE-STEP®)과 self-etching type(CLEARFILSE BOND™)의 technique sensitivity를 비교하기 위해 19명의 치과 의사에게 시스템별로 5개씩 1인당 10개씩의 시편을 주었다. 제조사의 지시사항을 설명 후 접착시키도록 하여 총 190개의 시편을 완성하여 전단결합강도를 비교하였다.

self-etching type의 CLEARFILSE BOND™가 통계학적으로 더 큰 전단결합강도를 나타냈다. 변동계수(coefficient of variation)는 acid-etching type의 ONE-STEP®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술자의 변화에 따른 Technique sensitivity가 더 높다고 생각된다. 임상경력과 전단결합강도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.